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 아브넬과 요압의 칼을 쥔 지성인)- 김성수 목사 낙서장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은 공적 책임과 윤리를 충실히 감당할 때만 비로소 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명제는 틀렸고, 그는 그저 과대평가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높은 명성과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적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공적인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이용해 복수극을 펼친다면, 그보다 치졸하고 형편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압도적인 인지도와 자리가 무기가 되어, 대중은 그의 말과 글을 아무런 여과 없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명예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경제적 부, 학문적 성취, 대형 교회의 타이틀 등)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진리'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대중은 속을지 몰라도, 그의 진짜 성품과 실질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던진 억지 주장을 모두가 믿어준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가 얼마나 과대평가된 인물인지가 공적으로 폭로될 뿐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군중을 등에 업고, 오랜 세월 외롭게 명예를 쌓아온 타인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넬과 요압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의나 신의 뜻을 내세우며 뒤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배신을 정당화한 아브넬의 기회주의, 그리고 원수 갚을 타이밍을 노리다 단칼에 찔러버린 요압의 잔혹함이 동시에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의인화하고, 피해자의 위치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해 휘두르는 칼이 어찌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는 맹신에 차 있겠지만, 그 역시 들추어지면 수치스럽고 비참한 실존일 따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무자비하게 던진 부메랑은 결국 더 큰 이슈와 파장이 되어, 그가 가진 크기만큼 세상을 뒤흔들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세상에 낱알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절대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한 자가 어찌 그 자리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운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마지막 바람은, 이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결자해지하여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이 시대의 지성인이며 명성을 가진 자라면, 파괴가 아닌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뢰와 명예를 되찾는 길은 오직 그 용기 있는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